

신소설 재외 이주 서사에 나타난 젠더 연구*

- 「소학령」을 중심으로

이소희**

차례

1. 이해조와 『매일신보』
2. 신소설과 “집 밖의 여성”
3. 가족 이주와 “로드 신소설”
4. 재외 이주 공간 내에서 젠더 및 섹슈얼리티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소설 『소학령』에 나타난 젠더 및 섹슈얼리티 양상을 분석하였다. 재외 이주 서사는 1900년대 후반에 급증하기 시작한 이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면서 1910년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신소설 특징의 일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소학령』은 앞서 이주한 남편을 찾아가는 여성의 재외 이주 서사이다. 그러나 재외 공간에 정착한 이주 서사가 아니라 소학령에 미리 정착한 남편 강한영을 찾아가는 홍씨 부인과 시동생 강위영, 그리고 아들 동이로 이루어진 가족이 길 위에서 겪는 경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야기의 단초는 소학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방씨 형제가 홍씨 부인을 겁탈하려는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남편의 보호가 없는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러시아 현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가는 이주 체험에서 여성의 젠더

* 본 논문은 2014년도 제1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한 논문임.

** 한양여대 교수

와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민을 다룬 재외 이주 서사로 알려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적 폭력인 셈이다. 작품 전체 서사의 초점이 조선 내의 유교 사상에 근거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재외 이주 공간의 특수한 환경에서 어떠한 역학 관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성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재외 이주 공간은 무법천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학령』은 재외 이주 공간에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역동적, 역학적 관계들을 “빙공착영”의 개념 아래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집 밖의 여성”을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신소설, 재외 이주 서사, 성적 순결성, 『소학령』, 가족 이주 서사

1. 이해조와 『매일신보』

19세기 말엽 조선인들의 해외 왕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인들의 재외 이주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인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해외 왕래와 재외 이주는 1902년 12월 인천항에서 조선인 103명을 태우고 출발한 하와이 이민을 필두로 공식적으로, 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해외 관련 정보를 주로 근대 매체인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재외 이주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삶과 인식의 변화는 당시 이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신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신소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재외 이주 서사로 분류되는 『소학령』에 나타난 젠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로부터 “신소설 길을 연 공로자”로 평가받은¹⁾ 이해조는 임화를 비롯한 후대의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문학적 소재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이인직을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 정신도 낡은 양식도 새로운 의미에서 재종합시키지 못했다”는 혹평에서 출발하여 “풍속 일반을 그려내는 통속작가”라는 폄하를 받기도 하였다.²⁾ 그러나 리얼리즘과 민족의식의 관점에서 이해조를 평가한 최원식은 “봉건적인 구문학의 근대적인 국민문학으로의 개혁 제창과 창작을 통한 실천”을 한 작가로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최원식은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신소설을 평가하면 계몽의식을 드러냈지만 친일적인 이인직보다는 반봉건의 색채를 드러낸 이해조가 신소설 문학사의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애국 계몽운동이 1910년 이후 조선의 식민지 전략과 함께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조 역시 그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상투적 구소설과 복수담의 통속적인 신소설만 양산했다고 보고 있다.³⁾ 실제로 1900년대에 발표된 이해조의 신소설들에 비해 1910년 이후 『매일신보』를 통해 연재소설 형태로 발표된 『화세계』⁴⁾ 이후의 작품들은 소설의 서사가 극단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만큼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스토리를 선정적으로 만든 것이다.⁵⁾

1) 『조선일보』 1926.6.14; 이해조 장례기사 제목

2) 임화, 『개설조선신문학사』, 『인문평론』, 1942.2.

3) 그는 이해조가 『자유중』을 통해 자신의 계몽사상을 완성하는 한편 『고목화』, 『빈상설』, 『구마검』 등을 통해 애국계몽운동 노선을 반영한 새로운 소설의 모형을 제출하였다고 보고 백성을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계몽주의적 활동을 소설을 통해서 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171~178쪽.

4) 1910년 10월 12일부터 1911년 1월17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첫 번째 신소설이다.

5) 이영아 역시 1910년대 이후 『매일신보』에 실린 이해조의 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이 죽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강력 범죄가 난무하며 주제도 풍속의 개량이라기보다는 ‘복수’를 중심으로 한 권선징악적 주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이러한 변화는 1910년 이후 이해조의 신소설 대부분이 근대 신문 매체인 『매일신보』의 연재를 통해서 창작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당시 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내 유일의 국문 신문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누렸던 『매일신보』에서 연재소설을 게재한 목적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정책을 홍보, 선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 독자들의 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총독부 기관지로 전략한 『매일신보』는 이전과 비교하여 판매부수가 떨어지게 되어 연재소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⁶⁾ 그러므로 『매일신보』는 “현시 조선 제일 소설가”인⁷⁾ 이해조와 당시 가장 친숙한 신문소설 양식이었던 ‘신소설’을 통해 독자 확보에 나섰다.⁸⁾ 이러한 매체적 특징과 연결하여 그의 작품을 분석한 이희정은 오히려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이해조의 소설에 대한 인식과 소설가로서의 자기인식이 깊어졌다고 평가했다.⁹⁾ 그 예로 이해조의 소설관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매일신보』 1911년 4월 6일자와 6월 21일자에 게재된 『화의 혈』을 제시했다.¹⁰⁾ 특히 이해조 자신이 “빙공착영”이라는 소

다.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학회, 2007, 50쪽.

- 6)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이후로 만부 이상의 구독률을 자랑하였지만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판매부수는 3천부를 밑돌게 되었다고 한다. 한원영, 『한국 근대 신문 연재소설 연구』, 이희, 1996, 68쪽.
- 7) 『본 신보의 대체신』, 『매일신보』, 1911.6.14.
- 8) 함태영, 『1910년대 소설의 역사적 의미』, 소명출판, 2015, 97쪽. 이희정도 이해조 영입에 대해 이해조로 하여금 “1900년대 익숙한 서사물인 신소설을 연재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느끼는 거부감을 줄여보려고 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이희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76쪽.
- 9) 이희정, 위의 책 80쪽.
- 10) 이해조가 『매일신보』에 첫 번째로 연재한 신소설은 『화세계』(1910.10.12~1911.1.17)이며 세 번째 신소설 『화의 혈』(1911.4.6~6.21)에서 처음 시작하는 4월 6일자와 마지막 끝내는 6월 21일자에서 소설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4월 6일자에서는 단지 지나간 ‘소문’에 의존하였던 이전의 소설과는 달리 자신의 소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소설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6월 21일자에서는 “빙공착영”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의 허구성을 강조하였다.

설에 있어서의 허구적 형상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소설이란 신문기사나 소문과는 다른 것임을 밝히면서 “소설이란 개연성 있는 지어낸 이야기인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러한 1910년대 이해조의 소설관에서는 “근대적 리얼리즘의 단초가 보인다”고 평가하였다.¹¹⁾

신문 연재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소설의 수용적 측면에서 독자에 대한 인식인데 이해조 역시 소설의 상업성을 반영한 독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발달하였다. 그러나 독자 확대를 위한 전략은 이해조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신문사 차원에서도 기획되었다. 실제로 『매일신보』는 1912년 3월 1일부터 대대적인 지면 쇄신을 단행해¹²⁾ 『대한매일신보』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¹³⁾ 그 과정에서 제1면에 순국문으로 개재되던 신소설은 제4면 상단으로 옮겨지면서 삽화가 함께 게재되었다.¹⁴⁾ 그러므로 이러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1910년대, 그 중에서도 특히 1912년 이후 『매일신보』를 통해 발표된 이해조의 소설에서 독자에 대한 인식은 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본 연구 대상인 『소학령』 역시 1912년 지면 쇄신 후 『춘외춘』, 『탄금대』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재된 소설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있다. 특히 『탄금대』의 이야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이해조는 수개월동안 독자들에게 비상한 환영을 받던 『탄금대』를 마치고 다음호부터는 “소학령이라 하는 탐

11) 이희정, 앞의 책, 81쪽.

12) 이 때 처음 시작되는 ‘경파기사(硬派記事)-정치·경제 기사-1·2면-국한문’, ‘연파기사(軟派記事)-3면-순한글’이라는 지면 구성 방식은 1910년대 『매일신보』는 물론 이후 우리나라 신문 제작의 전형이 된다.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94쪽.

13) 함태영에 의하면 감독인 토쿠토미나 사장이었던 요시노, 『매일신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나카무라 등의 일본인 경영, 편집진은 약 1년 반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면 쇄신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이 지면 쇄신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독자 확보 및 증가에 있는데 그 준비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1911년 6월부터이다. 함태영, 앞의 책, 192쪽.

14) 1912년 1월 1일부터 4면에 연재된 신소설 『춘외춘』부터 매회 한 컷의 삽화가 삽입되었다.

협소설을 게재코저 하노니 이는 기자가 여러 해 동안을 보고 듣던 혜제의 실적이라, 필법의 용록함을 용서하고 사실의 기괴함을 착미하시오”라는 글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있다.¹⁵⁾ 특히 이 글에서는 자신의 소설이 독자들의 취미를 돕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느끼면서도 “허탕무거”하다는 독자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원래 소설이란 기사와 달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적만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차후 독자의 흥미를 더욱 끌 수 있는 “탐험소설”을 선택하게 되는 것 역시 신문 연재소설로서의 상업적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해조 자신이 『소학령』을 “탐험소설”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독자들에게 낯선 소재를 갖고 와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로 꾸미겠다는 작가적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연구들은 이해조 소설의 대중성과 통속성을 『매일신보』라는 게재 매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함태영은 이해조와 『매일신보』가 함께 강조한 대중성과 계몽성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속성이 대중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을 때 신소설이 담고 있는 처첩·고부 갈등이나 여인의 수난 등의 통속적 요소는 당시 대중들의 정서를 살펴 그에 적당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려는 작가와 『매일신보』의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므로 계몽성의 변질과 오락성 강화로 요약되는 이해조 신소설 변화의 핵심은 동시에 『매일신보』가 이해조에게 요구한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⁶⁾ 이희정 역시 독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해조의 모습은 신문 연재소설의 필연적 성격인 “상업성” 때문이므로 1910년대 이해조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보이는 “흥미”에 대한 인식은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라 소설의 사회적 역할을 좀 더 넓히기 위하여 독자 수용적 측면을 고려한 “작가-신문매체-독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1910년대 이후 이해조의 소설관은 1900년

15) 『탄금대』, 『매일신보』, 1912.5.1.

16) 함태영, 앞의 책, 101쪽.

대에 그가 지녔던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의 지속이었고 이전의 신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파악된 소설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해조의 소설을 통한 근대로의 기획이었다”라고 주장했다.¹⁷⁾

이와 같이 1910년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신소설이 그의 “소설을 통한 근대로의 기획”이라면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외 이주 서사이다. 왜냐하면 신문 연재소설로서의 재외 이주 서사는 이해조가 소설의 본질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소설의 사회적 기능”과 대중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흥미”가 두 축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되 그의 소설관인 “빙공촬영”이 상상 속의 재외 이주 공간에서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이해조 자신이 이 작품을 “탐험소설”로 분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독자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상 속의 재외 이주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소설의 사회적 기능”과 “흥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독자들의 현재 일상생활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도,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외 이주 서사의 젠더 양상이 전복적 기능을 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2. 신소설과 “집 밖의 여성”

개화기는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사회진출 통로를 개척하였던 시기이다. 사대부 여성, 상류층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결성하고 교육 및 자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갔으며 이 과

17) 이희정, 앞의 책, 83쪽.

정에서 개화기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모하는 양상은 개화기의 여성에 대한 담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서리(胥吏)의 딸”로, 또 신소설은 “평민의 딸의 처소”로 명명될 만큼 “신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명문대가의 후손이기보다 말단 관료, 흔히 겨우 9품 직함을 받아낸 중인 계급의 자손”이라는 점이 주목받았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은 여성들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 중요한 잣대는 바로 “성적 순결성”이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이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공적 영역인 사회로 진출할 때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이다.¹⁹⁾ 개화기의 조선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소설은 조선의 유교적 내외의 풍습이 개화기에 와서 사라져 가는 모습을 “가출 모티프”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의 가출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공간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정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가출”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는 것,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 또는 복종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²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소설 여성 주인공들의 “가출”은 서구 문화권에서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인형의 집』 노라의 가출과 비견될 만하다. 그리고 그들의 가출이 노라처럼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란한 개화기 조선 사회에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 설정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상황 설정이야말로

18)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54~55쪽.

19) 제1기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19세기 영국 사회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 영역인 사회로 대거 쏟아져 나오는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요구한 사항이 바로 “성적 순결성”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들을 “마리아/막달레나”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호명하였다.

20)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4쪽.

당시 사회적 질서 내에서 허용하고 용인할 수 있는 여성해방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신소설 줄거리의 대부분은 여성 주인공이 집 밖으로 나가는 즉시 순결에 위협을 겪게 되지만 자신의 순결을 보호, 보증해 줄 인물들을 만나거나 스스로의 여성성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안락한 집으로 다시 돌아와 행복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여성 주인공의 순결성의 문제가 신소설의 서사 진행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소설은 “여성과 가족의 서사”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 수난의 서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때 여성의 수난은 여성의 현실적 육체를 둘러싼 남성의 욕망과 투쟁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신소설에 있어서 “성적 순결성”은 여성의 최고의 가치, 즉 개화기의 여성에 대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며 신소설의 여성중심 서사 추동력의 엔진이다. 그러므로 신소설의 대부분의 결말은 순결의 보존이 가능한 “집”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외 이주 서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즉 여성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은 결국 새로운 가정의 형성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이 기존의 가정을 복구하며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이다.²¹⁾ 신소설의 공통적인 스토리 라인은 여성 주인공의 “집 밖으로 나감-순결 위협-위기 극복-행복한 결말”이다. 결국 신소설은 당시 개화기 사회에서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했던 젠더 이데올로기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²²⁾

권보드래는 신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바로 “여성적인 장르”

21)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 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52~53쪽.

22) 이영아는 개화기 신문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간음, 매음, 창기의 문제가 표상하는 근대적 삶의 퇴폐적 형태는 개화기 사회에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고 신소설이 여성 인물들의 순결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순결성의 문제가 신소설의 서사 진행의 추동력과 함께 제어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아, 앞의 글, 48~49쪽.

임을 주장하며 대중적인 인기에서나 문학사에서의 영향에서나 주목할 만한 신소설이 모두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고 나아가 여성의 생애를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²³⁾ 왜냐하면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비록 결혼으로 귀착되는 서사 구조에 지배되고 있으면서도 집 안의 세계보다도 더 집 밖의 세계에서 살아가므로 신소설 서사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집 밖을 나선 여성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요 그 일환으로서의 연속적인 수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수난 서사의 틈새에도 전복의 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간파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 주목된 것은 주인공의 수난, 특히 ‘성적’ 수난이라는 측면이었으나 따라서 여성=성적 존재로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신소설의 보수성을 증명한다는 해석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나 거꾸로 보자면 성적 수난이라는 형식 속에서나마 여성이 계속 집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

23) 권보드래, 앞의 책, 43쪽; 이러한 근거를 역사 전기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역사·전기물은 남성적인 장르이고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이 둘은 각각 남성 영웅과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을 뿐더러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확인할 수 없되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라는 구분에도 합치할 듯 보인다. 역사·전기물은 ‘민족이라는 주체의 역사’라는 설정에 충실한 반면 신소설은 당대를 배경으로 일상의 계기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고 역사·전기물이 문자 언어와 전통에서 출발하는 반면 신소설을 규정하는 것은 구술 언어의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전기물이 대부분 국한문체로 창작되었고 따라서 한문의 세계에서 국문의 세계로 이동해야 했던 남성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적합한 양식이었다. 신소설은 순국문 글쓰기를 최대의 특징으로 하는 양식으로서 새로이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고 있던 여성과 농·상·공의 평민층에게 호소하기 쉬운 양식이었다. 역사·전기물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주로 소비된 반면 신소설은 자발적 독서 시장에서 소비되고 연행문화와 결합되어 수용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 초기 서사 문학의 역사란 남성성과 여성성이 평행 발전한 역사, 두 이질적 선분 사이의 만남이 거의 목격되지 않는 역사처럼 비친다. 역사·전기물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헌신하는 반면 신소설은 사적이고 가정적인 주체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 평행·분리의 구도에 적절히 부합되는 듯하다.” 46~47쪽.

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신소설의 여성은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중국의 원앙호접과 소설에서 남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역할, 즉 집 밖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이양받는다. 그 실질적 성과를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양상은 그 자체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48)

다시 말하면 한국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1890년대에 발전한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1910년대 이후 성행한 중국 원앙호접과 문학과 비교해볼 때 가정적 존재로서의 특질을 현저하게 약하게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가정소설이나 원앙호접과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의 생명은 가정에서 비롯되어 가정에서 끝나지만 한국 신소설의 주인공은 비록 수난을 겪을지언정 집 밖의 존재로 남아있으며 결국에는 집으로 귀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집 밖에서 수난을 겪는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며 어떠한 주체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점이다.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비록 결말에 가서는 집으로 돌아올지언정 다시 돌아온 여성적 주체는 길 떠날 때의 주체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며 그 수난의 과정은 신문 연재소설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과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수난과정의 서사 자체도 매우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비교문학적 관찰은 동아시아 3국에서 근대가 태동하던 시기에 젠더 양상이 어떠한 혼란과 변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 일말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분석이다.

필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조선 후기 소설에서와 같이 여성성이라는 기호를 덮어쓰고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라 현실적 육체를 갖고 등장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인데 이는 영미권 여성문학과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²⁴⁾ 조선 후

24) 필자는 2012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4회 현대여성 글쓰기학회(CWWA: Contemporary Women's Writing Association)의 동아시아 조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학술대회의 주제가 바로 “여성과 몸((Wo)Man and the Body)”이었는데 여성문학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문학과 영

기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현실적 육체는 어디까지나 남성 주인공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신소설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 주인공은 개방된 현실적 육체를 갖고 스스로의 독립적 의사로 가출을 감행하며 끝끝내 침해당하지 않고 ‘순결’로써 자신을 증명할 서사적 역할을 할당받는다.²⁵⁾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되 젠더 정체성에 있어서는 여성성이 거세된 남장한 여주인공들이 아니라 끝까지 현실적 육체를 갖고 존재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신소설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들의 젠더 정체성이나 현실적 육체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진일보한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소학령』의 흥씨부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자신의 현실적 육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권보드래는 신소설 속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육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신소설의 획기적인 특징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신소설 여주인공의 육체는 훨씬 현실적이다. ‘여화위남’의 모티프의 광범위한 차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은 여성인 채 집 밖에 나선다. 물론 이들은 끊임없이 성적 위협에 직면하고 과업을 추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대신 수난에 쫓겨 다니는 수동적 신체로 살지만, ‘집 밖’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육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신소설의 획기적인 특징이다. 신소설의 주인공은 집에서 강제 축출당하기도 하지만 자주 자기의지에 의해 집을 나서며 또한 흔히 가출의 이 두 가지 계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51, 필자 강조)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해조와 『매일신보』가 독자 확대의 가치를 내걸고 1912년 3월 1일부터 지면 쇄신을 단행한 후 야심차게 준비한 『소학

미문학이 가장 눈에 띄게 큰 차별화를 보인 지점이 바로 “여성의 현실적 육체”와 관련된 주제들이었으며 이는 영미와 동아시아 지역 조직위원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까지 나타났다.

25) 권보드래, 앞의 책, 53쪽.

령』에서 재외 공간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3. 가족 이주와 “로드 신소설”

한일병합이 정치적으로 완료된 1910년을 전후해 조선인들의 해외 이주는 크게 증가한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조선인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이는 봉건사회의 몰락과 함께 조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소작농을 비롯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계층의 경제적 몰락이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존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강화되어가는 시기인 1910년을 전후하여 해외 이주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해외이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만주지역의 경우 조선인의 이주 수는 1860년대의 7만7천여 명에서 1910년 22만여 명으로 세 배 정도 증가한다.²⁶⁾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00년 2만 7천여 명이었던 조선인 수는 1910년 5만 4천여 명으로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거의 두 배 정도로 급증한다.²⁷⁾ 1865년 청의 봉금령이 해제된 후,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최초의 조선인 거주지역인 ‘지신허’(地新墟, Tizinkhe) 마을이 1864년에 형성된 이래로 꾸준히 이어진 조선인의 재외 이주는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생존 환경의 악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26) 권태환 편저,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 출판부, 2005, 17쪽.

27) 세부적인 통계수치의 차이가 있는데 김 게르만의 저서엔 공식 거주 등록 인구만 1899년 25,655명, 1910년 50,965명, 1915년 72,600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채문의 경우엔 1910년대 초반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김 게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50~171쪽.

이채문, 『동토의 디아스포라』, 경북대 출판부, 2007, 125~134쪽.

다.²⁸⁾

이와 같은 조선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재외 이주 체험은 문학적 형상화로 나타났다. 식민화로 인한 경제적 궁핍화, 그로 인한 고향 상실이라는 현실의 당면 문제를 수용하여 구체적인 생활 경험에 바탕을 둔 재외 이주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는 191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일부 신소설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이들 작품은 몰락한 양반을 이주 체험의 주제로 설정하여 당시 이주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재편되는 계층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고, 일제 식민화 과정이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주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는 그 자체가 이주를 가능하게 한 복합적인 요소와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결과물이다. 동시에 이주 체험을 다룬 서사물은 당시 사회적 영향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와 이주해 간 공동체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사건들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의 양상 또한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학령』은 1912년 5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연재되었으며, 1913년 9월 5일 신구서림(新舊書林)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소설은 구한말 러시아 지역으로의 재외 이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그 소재의 특이성으로 해서 이해조의 멕시코 이민을 다룬 『월하가인』(月下佳人) 및 육정수(陸貞洙)의 하와이 이민을 다룬 『송뢰금』(松籟琴)과 함께 주목되는 작품이다.²⁹⁾ 『소학령』은 경기도 송산 출신인 강한영 일가의 재외 이주 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외 등장 인물들의 출신 지역도 원산을 비롯해 부산, 춘천, 양주 등 조선 전역에 걸

28)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04쪽.

29) 육정수의 『송뢰금』(박문서관, 1908), 이해조의 『월하가인』(『매일신보』, 1911.1.18~45; 보급서관, 1911), 『소학령』(『매일신보』, 1912.5.2~7.6; 신구서림, 1913) 모두 당시의 정치적 변동과 경제적 몰락에 의한 재외 이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송뢰금』은 미완으로 끝나 작품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쳐 있다. 약 1년 반 정도 앞선 이해조의 또 다른 작품 『월하가인』과 비교할 때 서사구조와 스토리 전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재외 이주 체험 묘사 역시 훨씬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해삼위(海蔘威,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가족 일행이 찾은 객주집에서 이제 더 이상 조선 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빙표”(여행 허가증)와 함께 “몸표”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주가 국가적 경계를 벗어난 타국으로의 이주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개척지인 해삼위에서 소학령(巢鶴嶺, 우스리스크)³⁰⁾에 이르는 동안 강한영 일가가 만나는 조선인들의 출신이 조선 전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일병합을 즈음하여 남쪽 지방 출신의 이주도 본격화하였음을 반영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재만 조선인 총수 중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쪽 지역 출신자의 비중이 1894년엔 90%였으나 1910년에는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³¹⁾ 이는 곧 북쪽 지역에 한정되었던 이주가 전 조선에 걸쳐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조선의 토지소유관계가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하고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조선인의 거주가 공식적으로 보장된 것을 비롯해 강제 병합으로 인한 정치적인 반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형규는 『소학령』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출신 지역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는 이 시기는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본격적인 해외이주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³²⁾ 『소학령』내에서도 러시아 국경 넘어 해삼위 지역에 조선인 공동체가 형성된

30) 구한말 이후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며 독립운동과 문화사업을 펴던 옛 해삼위의 한인촌과 소학령(우스리스크)은 현재 자취만 남아있다. 1920년대 후반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작가 조명희의 작품을 비롯하여 강제 이주 당하기 전에 남긴 고려인들의 자료마저 움스크 비밀보관소 등으로 옮겨졌다. 이곳에 살던 조선인들은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시베리아 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로 보내졌다.

31)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58쪽.

32) 김형규, 앞의 글, 124쪽.

연유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조선사람들 사는 부락(거랭이쓰기)에는 사람의 조사와 각색 세금이 과다하여 날로 당하는 곤란이 이루 형언할 수 없건마는 불쌍한 인민들이 해마다 달마다 수없이 건너가 남녀 총수가 오십만 명에 이르는 부득이한 사정 두 가지가 있음이라. 한 가지는 농토가 없어서 생활할 도리가 없는 중 그곳은 누천년 묵은 땅이라 토지가 심히 기름져 힘자라는 대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면 가히 십 배의 추수하는 연고이요 또 한 가지는 조선은 돈이 흔치 못하고 각종 생활하는 기관이 발달치 못하여 노동하여 벌어들일 일도 별로 없고 설혹 여간 있더라도 곡가가 박약하여 의지식지(衣之食之)할 거리가 못되는데 그 곳은 각국 부상대고(富商大賈)가 구름 모이듯 하여 매일 품값이 조선 몇 갑절인 고로 한 사람 두사람 건너가기를 시작하여 풍성학려(風聲鶴唳)로 그 모양으로 모여드는데 위영이가 몸표 사기 전에는 순사의 조사가 두려워서 주인집 대문 밖에는 나가지 못하다가 몸표를 가진지라. (312)³³⁾

이해조가 창안한 해삼위 지역의 조선인 공동체, “거랭이쓰기”는 “남녀 총수가 오십만 명”에 이르는 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의 조선인은 “몸표”를 지니고 다니면서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얻는데 이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배경상은 이 작품이 해삼위, 소학령, 추풍에 이르는 광대한 재외 공간을 서사의 주된 배경으로 한 점에 주목하고 이 공간은 이해조의 세계인식과 대응전략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소학령」의 재외 공간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나라를 잃은 현실에서 영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 국가를 넘어서는 삶의 실존적 조건으로 재현되어 있다. 둘째, 재외공간에서 주체가 발화될 때 그 표현의 적실함을 얻을 수 있는 ‘고국’과 ‘동포’라는 어휘의 용법이 탈국가적 맥락 하에

33) 이해조, 「소학령」, 『한국신소설전집 3』, 을유문화사, 1968.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한 것임.

서 구체화되어 있다. 셋째, ‘금전시대’의 보편적 현상, 즉 노동과 자본의 흐름에 따라 배치되는 유이민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서사공간이며, 작가의 당시 식민지 현실 인식과 대응 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특징들은 1910년대 이해조 소설을 이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⁴⁾ 『소학령』 재외 공간의 이러한 특징은 계제에 앞서 이해조 자신이 “여러 해 동안을 보고 듣던 혜제의 실적”이며 또한 독자들에게는 “사실의 기괴함을 착미하시오”라고 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탐험소설”이라고 명명한 이유도 새로운 재외공간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유발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학령』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의 연재소설로 탄생했다는 점은 그의 글쓰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1910년 이후 이해조는 소설이라는 장르와 독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노력은 소설 내 창작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신문 연재소설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회 끊임없이 독자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학령』 역시 소설 전체의 서사가 기승전결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가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계속 유도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또한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개별 사건마다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통해 해결되는 내용 역시 독자들의 흥미와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학령』의 등장인물은 이해조 전반기 소설의 인물들과 달라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인물 형상에서 계몽성이 탈각된 점이다.³⁶⁾ 새로운 인물을 소개 없이 등장시켜 독자의 궁금

34) 배정상, 『이해조의 『소학령(巢鶴嶺)』 연구 - 재외(在外)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간SAL』, 제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96~105쪽.

35) 이희정, 앞의 책, 93쪽.

증을 자극하고 다시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서사 전개는 신소설에서 보편화된 것이지만 『소학령』에서는 이런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왜냐하면 이해조 전반기 소설에서의 등장인물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인물들만을 등장시킬 수 있었던 데 비하여 이 작품 내에서는 러시아령의 재외 공간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계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조선 각지에서 이곳으로 유입된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흥미를 위해 무작정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과 필연성을 고려해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의 이해조 소설 창작 기법은 독자와의 소통과 흥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발전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소학령』에서 보이는 당대성과 개연성의 증가가 작가의 치밀한 계산의 산물임은 자명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리얼리티의 증가가 지향하는 방향 내지는 그것을 추동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따라서 인물 배치의 주도면밀함 역시 작가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소학령』의 주된 이야기는 몰락한 시골 양반의 아들 강한영이 러시아 영토인 추풍(秋風)에 농촌 노동자로 떠난 다음 그 가족이 남편을 찾아 그곳으로 이주해가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그린 것이다. 경기도 송산 양주시에 사는 홍씨 부인은 어린 아들 동이를 데리고 남의 집 바느질 품삯으로 모진 고생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삼사 년 전 집을 나가 소식이 없던 남편 강한영에게서 그 동안 간도(間島)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림을 장만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가재를 정리하여 추풍으로 오라는 편지를 받는다. 가난 속에서 한 입이라도 덜고자 남의 집 머슴으로 가서 일하고 있던 시동생 강위영과 함께 가산을 정리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로 길을 떠난 이들은³⁷⁾ 해삼위까지는 무사히 이르렀으나 재외 이주 과정

36) 최수일, 『『巢鶴嶺』研究 - 통속성의 서사내적 원리』, 『반교어문연구』, 10권, 반교어문학회, 1999, 244쪽.

37) 여기서 홍씨 부인 혼자 길을 떠나지 않고 시동생과 함께 길을 떠나는 이야기 장치 역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재외이주를 바라보는 젠더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의 첫 정착지인 그 곳에서부터 수난을 당한다.

『소학령』은 전적으로 여성의 재외 이주 서사이다.³⁸⁾ 신소설의 주된 독자층이 여성/부녀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인이 남편을 찾아 나서는 낯선 이국의 풍경과 상황 속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것은 흥미로운 설정이다. 특히 ‘길’이라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인물들의 행로에 따라서 끊임없이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되는 가능성의 공간을 제시하고 우연을 극대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문 연재소설로서의 대중성을 실현한다. 젠더 관점에서 보면 『소학령』의 재외 이주 서사는 신소설의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가출모티프”의 확장된 형태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집 밖”으로 나서는 여성들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주된 서사는 해삼위, 소학령, 추풍을 배경으로 강한영의 가족 일행이 그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겪는 러시아에서의 낯선 경험들이 주요 내용이며 가족들끼리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강한영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부재한 인물로 등장하여 애초부터 여성을 보호해줄 남성은 없다. 따라서 가족의 이주 과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홍씨 부인이며 시동생 강위영은 함께 떠나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아니고 또 이주 여정 중에 헤어지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 작품 내에서 재외 이주 서사를 진행해 나가는 주체는 홍씨 부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이민을 주요 경험으로 다룬 재외 이주 정착 서사가 아니라 가족의 이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착

있다.

- 38) 이에 비해 『월하가인』은 남성의 재외이주서사이다. 동학혁명으로 몰락한 양반 심학서는 멕시코로 재외이주를 떠나지만 장씨 부인은 국내에 남아있으며 남편이 떠난 후 여러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장씨 부인의 슬픔과 남편에 대한 정절과 순종의 논리이다. 따라서 심학서의 멕시코 이민과 고난의 내용보다는 장씨 부인의 슬픔과 정절이 강조된 작품이다. 작가와 출판사는 독자로 하여금 장씨 부인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는 『매일신보』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당시 신소설의 독자가 대중, 특히 부녀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심학서의 고난보다는 남편 없이 고생하는 부인의 고난이 특히 강조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함태영, 앞의 책, 101쪽.

예정지를 향해 이동하는 서사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유민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므로 이 작품은 “노동이민 소설”로 분류하기보다는 “로드 무비”와 같은 “로드 신소설”, 또는 “로드 재외 이주 서사”라고 부를 만하다.

소설 내에서 홍씨 부인과 가족의 주요 여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고향인 양주 송산에서부터 육로를 따라 부산에 도착하여 근대 문물인 룬선(輪船)을 타고 원산, 청진을 거쳐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한 해삼위를 거쳐 다시 육로로 소학령(추풍)에 도착한 후 강한영을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여정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사실의 기괴함”을 독자들이 경험하고 “착미”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학령』의 내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작가적 의지가 “빙공착영”의 개념 아래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것이다. 즉 삼사년 전 부인에게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러시아로 노동이민을 간 강한영의 해외 이주 정착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의 편지를 받고 가재도구를 정리하여 해외 이주를 떠나는 홍씨 부인과 시동생 강위영, 그리고 아들인 동이 등 일가족의 8~9개월에 걸친 이주 여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사건이 전개되는 에피소드에 적절히 배치하여 전개하고 있다. 홍씨 부인은 가재도구를 정리하여 조선의 국경을 넘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에그, 내가 다니러 가는 것도 아니오, 아주 영영반이를 하여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면 고국은 막막하여지고 타국 고훈되기가 십상팔구이지. 어른은 어떠하였든지, 우리 동이로 말하면 아직 철모르는 것이 고국 일을 전연히 알지 못하고 아라사 사람이 되고 말 터이지. (311)

이 서사에서는 가족 단위로 재외 이주를 할 때 가족 전체의 미래를 염

39) 김형규, 앞의 글, 124쪽.

려하는 여성의 심리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영영반이”를 하는 가족의 운명 중에서도 자신은 “타국고혼”이 될 것이고 아들인 동이는 “아라사 사람”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해조는 당대의 시의적인 근대문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들의 동시대적 감각을 만족시켰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홍씨 부인이 근대문물인 기차를 타고 배를 타는 경험을 묘사한 아래와 같은 장면들이다.

기차라 하는 것은 장정이라도 처음 타면 고통이 돌며 급히 달아나는 바람에 어떡어떡 정신을 차릴 수 없거든 하물며 잘 자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에게 밤낮 빠치던 홍씨 부인이리요. 뉘엿뉘엿 어떡어떡 간신히 진정을 하여 분산에 와 하륙하여 원산기는 배편을 기다려 시간이 당도하니 세 식구가 짐을 이끌고 배에 올랐더라. 연통에서 연기가 풀썩풀썩 나며 두 귀가 딱 마치는 기적소리가 깜짝 놀랄만치 나더니 배가 살대같이 달아나는데 말고 있다가 비철에 바람은 왜 그리 몹시 불든지, 그 큰 배가 조리 까부르듯하며 배탄 사람이 노소남녀 물론하고 모두 열물을 토하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데 부인은 벌써 고생하라는 팔자를 타고나서 그렇는지 차를 탔을 제는 구역도 나고 현기도 나더니 차보다 몇 갑절 더 흔들리는 배에서는 정신이 말짱하고 아무 실없지도 아니하여 이 구석 저 구석 배안을 다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시동생의 뉘뉘 토하는 것이 마음에 딱해서 냉수를 떠다가 얼굴도 씻어주고 머리도 짚어주며 혼자 애를 무한 쓰다가 동이를 업고 뱃머리에 나서 우두커니 바라보느라니 바람이 점점 자고 물결이 평탄하여졌는데 난데 없는 단청이 휘황찬란한 층층전각이 공중에 솟아 있는지라. (308~309)

이와 같이 매우 사실적이고도 자세한 근대문물에 대한 묘사는 당시 이해조가 자신의 소설에서 근대적인 현실을 구성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사실성의 관점에 있어서 묘사적 현실을 차용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당대 모더니티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

해서 이해조가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대상에 대한 묘사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글쓰기는 1912년 3월 1일 이후 『매일신보』 사회면(3면)의 글쓰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송민호는 3면을 순환글로 바꾸고 사회의 “기문진담”을 다루게 되면서 기사쓰기 방식이 사실적인 정보 제시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가 아니라 소설적 묘사에 상당하는 글쓰기로 바뀌게 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해서 “비록 이해조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매일신보』 사회면의 기사쓰기 변화의 핵심적인 방향성에 당시 대중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신소설 작가이자 『매일신보』의 기자였던 이해조의 존재가 놓여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4. 재외 이주 공간 내에서 젠더 및 섹슈얼리티

홍씨 부인이 남편의 편지를 받고 소학령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소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과 이야기의 전개는 방인철·방의철 형제가 홍씨 부인을 겁탈하여 형인 방인철이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는 데서부터 모든 사건들이 시작되므로 이 소설에서 “성적 순결성” 주제는 소설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로드 신소설”로 정의하여 “여정을 따라가는 로드에서 누구의 경험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로 홍씨 부인의 경험과 관점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홍씨 부인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⁴¹⁾ 이와 같은 주제로 신문소설이 연재되었을 때 많은 여성독자들의

40)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 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65~173쪽.

41) 영국문학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의 재외이주 여행 서사가 주류를 이룬 시기는 19세기 중반 이후이며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늘어난 1850년대 이후 많은 영국여성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해삼위에 도착한 후 노자를 아라사(지금의 러시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있던 강위영은 청인(淸人)의 흥계로 돈을 강탈당한 후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시동생을 찾아 나선 홍씨 부인은 방인철·방의철 형제의 꾀에 빠졌다가 도망치게 된다. 방인철·방의철 형제는 이 소설 내에서 악인의 주요 표상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춘천읍 출생으로 십여 년전에 고향을 떠나 간도를 거쳐 지금은 해삼위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육혈포로 사람들에겐 사기와 강도짓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형제가 홍씨 부인에게 같은 조선인으로서 단순한 호의를 베풀었으나 며칠 후에는 함께 계략을 꾸며 형인 방인철이 홍씨 부인을 겁탈하여 자신의 여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재외 이주 사회에서 여성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형인 방인철이 “우리가 육혈포만 가졌으면 먹고 살기는 근심이 없는데 한 가지 근심은 장가를 들어야 자식도 낳고 살림도 해볼 터인데 이곳에는 계집이 귀해서 졸연히 얻을 수가 없겠구나”(319)란 말에서 재외 이주 조선인 사회에서의 성비 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⁴²⁾ 그러므로 『소학령』에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하며 진행되는 서사의 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인물들이 군상을 이루며 살인, 폭력 등의 복잡한 갈등 양상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또 조선을 벗어난 러시아 영토이지만 실제적인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탈영토적 공간에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해조가 여성의 개화, 계몽을 위해 전근대적인 수동적 여성상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개인적 주체로서의

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여행기로 묶어냈다. 1990년대 이후 이 분야는 여성적 글쓰기의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았다.

42) 1900년대 미국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간 한국 및 아시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진신부(Picture Bride)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아시아계 미국 여성들의 제1세대를 형성하였다.

여성의 모습을 강조한 점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⁴³⁾ 그러나 『소학령』과 같이 재외 이주 공간에서 남편의 보호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폭력을 러시아 현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가는 이주 체험에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 이 사건으로부터 앞으로 펼쳐질 홍씨 부인과 강한영 가족, 그리고 민장과 민장부인의 수난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노동이민을 다룬 재외 이주 서사로 알려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적 폭력인 셈이다. 특히 국가적 통치 질서가 미약한 혼돈의 공간에서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홍씨 부인이 자구책의 차원에서 이를 모면하는 장면은 매우 긴장감 높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묘사가 압권이다.

(...저놈이 악의를 품은 터에 내가 제 앞에서 경각내로 죽기 전에 범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서 욕을 면하는 수가 없을 터이니, 오냐, 내가 이미 생각한 계교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설마 제가 속아넘어가고 말 터이지)하고 천연한 말로... 『여자는 남자와 달라 매삭에 월경이 있는데 마침 월경이 있는 중이 오니 며칠간 용서하옵소서』 인철이가 우악한 욕심에 부인의 말이 핑계어니 하여 당장에 강포의 욕을 보이려고 달려든즉, **과연 부인의 몸에 피결레가 있는지라**, 그제는 부인이 진심으로 한 말인 줄 알고 서머히 물러앉으며 『응, 공교한 일도 있소 나는 부인이 거짓말로 속이는 줄 알았구려』..... 부인이 방가 나간 뒤에 스스로 신세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잠시를 살아있기 싫으나 심중에 단단히 결단하기를 (내가 십생구사할지라도 기어이 가장의 얼굴을 만나보고 말리라) 하여 그 밤에 동이를 둘러업고 그 집 뒤 울구멍으로 기어나가 정처없이 도망을 하는 중이더니 그곳은 사시상철 바람이 심한 터이라. (323~324; 필자 강조)

43) 『자유종』을 비롯하여 『탄금대』, 『화세계』, 『비파성』 등이 이러한 작품에 속한다.

이 장면은 앞에서 권보드래가 언급한 “신소설 내에서 여성의 현실적 육체가 매우 잘 드러난 지점”이며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적 순결성”이 어떻게 보존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뺨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주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현실적 육체를 방어한 예이다.

이희정은 이해조의 신소설에서는 「혈의 누」에 등장하는 김관일처럼 낡은 도덕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일본과 미국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며 다만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각자 헤쳐 나가는 주인공들이 발견될 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고소설에서처럼 그 고난을 수동적으로 겪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자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해 그것을 헤쳐 나가는 개성적 인물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조의 계몽의식은 문명개화의 길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색보다는 “구한말의 부패한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진정성 발견에 그 토대가 있으며 1910년 이후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도 그의 계몽성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⁴⁾ 또 송민호는 이해조가 중국 명대의 한문 단편 소설 서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대의 이야기 구조 속에 당대적인 시공간 배경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동시대적 감각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창작적 이념성과 미적 형식 사이의 부조화 속에서 “나름대로 그 현실성과 사상성을 담아낼 형식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가”였다고 평가했다.⁴⁵⁾ 이러한 고민의 와중에서 기지와 재치로 자신의 현실적 육체를 방어하는 홍씨 부인이 등장할 수 있었다. 「소학령」에서 제시하는 재외 이주 공간에서는 이해조의 이러한 특징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홍씨 부인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 위기의 순간을 스스로 매우 지혜롭게 모면했다. 그 후 홍씨 부인은 해삼위 조선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유민장과 민장부인을 만나

44) 이희정, 앞의 책, 87쪽.

45) 송민호, 앞의 글, 154쪽.

그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나고 유민장은 흥씨 부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고 민장부인 이씨와 다음과 같이 의논한다.

우리 동포들이 팔자가 사나와서 이친척기분묘(離親戚棄墳墓)하고 만리 타국에 와 있으며 어디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여야 할 터인데 원래 각도 모산지배가 많이 모여들어와 있는 탓으로 중구난방이 되어 이루 조제하는 수가 없어 밤낮 걱정이요 그놈이 저 부인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을 필경 알 터인데 무슨 괴악한 마음을 들는지 알 수가 없소 그러. (326)

만리타국에서 조선인 이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이주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대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탈영토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 재외 공간에서 이주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은 그들 스스로가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조선인만의 집단적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개척지 해삼위의 조선인 공동체 사회에서 방가 형제들이 벌인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려던 유민장은 결국 이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⁴⁶⁾

그 후 흥씨 부인과 민장부인은 의형제를 맺고 한 집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게 되는데 얼마 후 흥씨 부인은 방가 형제가 속임수로 보낸 남편의 병환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길을 떠난다. 결국 강위영과 흥씨 부인은 서로 떨어져서 소화령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흥씨 부인은 박석송이란 자를 만나서 또한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는 방가 형제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도 “내나 제나 흠아비는 일반인데 저 여편네 거동을 보니까 방가와 살기는 담 쌓은 즉 기왕 방가와 아니 살 이상에 공연히 방가

46) 이 때 해삼위 조선인 사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삼위 개척지 민장으로 말하면 가슴에 가득한 더운 피가 전혀 동포를 위하여 끓을 뿐이 아니라 평일에 행지언론이 정대공평하여 객지풍상에 있는 오십만 동포가 부형같이 추앙하더니 일조에 흥한을 만나 세상을 버릴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요?” (333)

가 우악을 부리다가 필경 저 여편네를 죽이고야 말 터이니 예라, 내가 방가를 꿀을 먹여 외꼭지 돌리 듯 하고 내가 차지하는 편이 옳겠다”(340)라고 생각하고 홍씨 부인과 동이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 든다. 이 때 갑자기 나타난 방인철은 총으로 박석승을 죽이고 다시 홍씨 부인을 겁탈하려 든다.

천지가 적막한 정밤중 고개마루에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직 홍씨부인과 방인철 두 사람 뿐이오, 그 곁에는 총맞아 죽어 넘어진 박석승의 송장 뿐이라. 우악한 방가가 약한 홍씨부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강포로 욕을 보이려 하니 부인이 저사하고 순종치 아니하려거나 방가는 기어이 제 욕심을 채우려거나 한참 힐난하는 판인데 부인은 악이 나서 아무것도 몰라 곁에 천병만마 뒤끓어 올라온대도 알지 못할 만한 경우이라. 별안간에 방가가 폭 엎드리지며 외마디 소리를 치는데 부인이 정신이 번쩍 나서 쳐다보니 어떠한 편발 총각이 큰 돌을 가지고 방가의 대가리를 조기껏 이기듯 하더니 부인 앞에 가 폭 엎드리며 『예구, 아주머니, 이게 웬 일이오니까?』 부인이 그 소리에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곧 생사간 종적을 모르던 시동생이라. 아주 폭 엎드려져 실성통곡을 하며 『예구 도련님, 어디 가 계시다가 여기를 오셨소? 내 원수 좀 갚아주오』. (342)

이 장면에서 홍씨 부인은 연속적으로 박석승과 방인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방인철은 이미 앞에서 홍씨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위인이다. 이 때 홍씨 부인은 뜻밖에도 갑자기 나타난 시동생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방인철은 도망간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적 폭력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방인철과의 악연으로 인한 추격전은 작품 내내 지속된다. 결말 부분에 이르러 강한영과 방인철은 각자 홍씨 부인을 찾아 나섰다가 객주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 김가와 이가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면서 의형제를 맺게 된다. 이러한 장면 전개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방인철

은 홍씨 부인과 얽힌 사연을 강한영에게 풀어놓으면서 “강가 처를 내가 이왕 보았는데 위인이 썩 업전합디다”라고 평가한 후 “형님 말씀과 같이 만일 추풍 가 있거든 형님이 얻어 데리고 살아보시려요?”(371)와 같이 홍씨 부인을 물건 취급하며 처음으로 만난 강한영에게 조차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겁탈할 여성을 상품으로 놓고 일종의 거래를 트려 한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 삼십이 내일모레인데 장가를 들어보도 못하였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는 계집 하나를 얻어 데리고 살아볼꼬 원이려니 개척지 살 때에 그 여편네를 보고 미상불 욕심을 내었어요”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강한영에게 “저 중간에 그 계집으로 하여 겪은 풍파를 이야기로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송구스럽고 말하는 나도 잇새마다 신물이 나오”라고 말한다. 결국 방인철에게 홍씨 부인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작품 내 채외 이주 공간에서는 남성적 욕망의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규율 등 공동체적 사회질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같은 러시아 지역 내에서도 조선인들이 선택했던 채외 이주 공간으로서 해삼위와 소학령을 비교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다.

소학령에는 조선 사람이 극히 많이 모여들었으니 이는 소학령이 해삼위보다 거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해삼위는 관리의 조사가 빈번하고 각종 세금이 다수하여 짐체 벌어서는 건디기가 어렵고 소학령에는 조사도 별로 없고 세금도 역시 없는 일망무제(一望無際) 황무지가 개척 곧하면 극히 무성히 곡식이 되어 생활이 심히 풍부한 곡절로 하나둘씩 그곳으로만 모여들어 호구가 날로 많아짐이라. (338)

즉 해삼위보다 소학령이 더더욱 정착하기 용이했던 이유는 소학령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탈영토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법과 규율, 사회적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두 곳의 날씨를 비교하는 장면 역시 이를 뒷

받침한다.⁴⁷⁾ 결국 우리가 주목할 점은 농사를 짓기에 편한 곳에, 또 정착한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덜 미치는 곳에 조선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건설한 소학령의 재외 이주 조선인 사회는 그리 평화로운 유토피아적 사회가 되지 못하였다. 시동생인 강위영이 묵었던 숙소의 주인은 그에게 “이 곳은 법이 없는 천지와 일반이라, 도적 놈이 경성드못하여 사람 죽이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곳이니 부디 조심하여 수상한 놈과 동행말고 무인지경을 저물게 지나지 말게”(350)라고 충고하며 그의 벽장에서 육혈포를 하나를 내어주며 보낸다. 강위영은 그 길에서 위기에 처한 홍씨 부인과 동이를 구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방가 아우놈이 제 형더러 홍씨 부인을 무인공산에서 겁혹하라 하고 동이를 업고 무인지경같이 오며 불쌍한 동이를 살해하려다가 제가 오히려 위영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성명을 버렸더라”(352)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소학령 사회의 무법천지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적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항상 대비되어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또한 『소학령』에는 해삼위와 소학령 지역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조선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가 형제나 박석승, 또 후에 등장하는 안국삼과 같이 당시 조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비열한 협잡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독자들은 그들의 비열함에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이해조는 이러한 사건들마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점점 빠르고도 자세한 묘사로 그려냈다. 당대의 시의적인 모습을 작품 속에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나라를

47) “기실은 출기로 해도 해삼위는 해풍이 들이쳐서 몇 갑질 영독하고 눈도 얼마쯤 더 오건마는 원래 바람이 심하니까 눈방울이 미처 땅에 떨어져 쌓여보지를 못하고 공중에서 바람이 불리어서 흔적도 없이 물러가 깊은 산곡 구렁텅이에 가 길길이 쌓여있는 연고로 처음 보는 사람은 눈이 아니 온 줄로 알고 소학령으로 말하면 바람이 해삼위에다 비교하면 아주 아니 분다고 하여도 가할 만한 까닭에 눈이 오는 대로 쌓여서 지붕이 가지런한데 그 곳에서는 집집마다 큰 개를 길러서 눈꾼 오면 개가 눈위를 싸다녀 사람다닐 길을 내고 눈 위는 마차를 못 타고 개차를 타고 다 넘어러라.” (339)

빠앗긴 현실의 안타까움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고진감래와 권선징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선(善) 의식과 정의감 고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품 중반부터 신파조 활극으로 전개되어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에는 친일적 경향이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강한영 가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본인 구원자에 대한 작가의 우호적 묘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청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 서술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작품 속에서 일본인은 중국인 빈민 지역인 “홍평자” 길거리에서 위기에 처한 흥씨 부인을 구해주면서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강한영의 동생 강위영은 해삼위에서 소학령으로 가는 길에서 조도전(早稻田) 대학 졸업생 일본인으로부터 여비가 없어 돈 십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이 일본인의 말을 통해서 당시 일본인이 그 곳에 사는 조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가이없는 일이다. 조선인민들이 정치의 부패와 사회의 문란으로 인하여 일찍이 상당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생활의 곤궁을 못 견디어 남부여대로 이친척 기분묘하고 타국어를 저와 같이 유리하여 모여와서 풍성을 무릅쓰고 각자 도생을 하는 중, 상당한 관리가 통할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지 못하고 법 없는 천지가 되어 서로 짓밟고 서로 죽이려고 능사를 삼으니 어찌 가석치 아니하리오. 내가 그 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정치는 계획치 못하려니와 개인간 참혹한 사람이 있으면 내 힘 미치는 대로 어디까지 구제하리라. (347)

구한말 이래 문명론에 기반한 ‘청인’과 ‘일본인’ 표상의 전도는 『소학령』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즉 일본을 모국으로 명명하며 ‘동포’인 일본인이 흥씨 부인을 구해주는 구원자이자 ‘대만토번’을 문명의 세계로 인도한 문명의 표상으로 제시되는 반면, 청인 거주지 ‘홍평자’는 마적굴로 표상되며 청인은 전근대적인 야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사이에 위치한 조선인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문명의 표상인 ‘모국’ 일본과 연결짓고 동족 중에서 무뢰한을 청인과 동류의 야만으로 표상화하고 문명공동체의 경계에서 축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⁸⁾ 『소학령』에서 보여주는 재외 이주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해삼위가 주인공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현지 주민이 아니라 방씨 형제와 같은 동포들이라는 점이다.⁴⁹⁾ 『소학령』 내에서 이방인들은 주요 서사나 인물로 등장하지 않으며 이방의 문물과 같은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또 이방인과의 마찰보다 동포들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양상은 러시아라는 북방에서 자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을 하려 했는가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방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잔존하고 있었던 시대에 대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찌면 이 당시 작가 자신과 독자 모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이민족과의 교섭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인들끼리의 갈등만이 이들의 상상 지도 안에서 그려낼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실질적인 한계이기도 하다.⁵⁰⁾ 또한 『소학령』에서 보여지는 친일의 성격은 이 작품이 발표된 『매일신보』의 정치적 지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10년 한일병합 후 『매일신보』는 사회 일반적 현상에 대한 보도라는 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조의 이전 작품에서 보이던 사회면 기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시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강한영은 가족을 기다리다 못해 추풍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도중에서 방인철·방의철 형제를 만나서 홍씨 부인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소학령에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시동생인 강위

48) 정종현,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63~65쪽.

49) 조형래, 『신소설의 여성과 공간-신소설의 근대성과 리얼리즘 재고를 위한 시론』, 『한국어문학연구』, 제4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186쪽.

50) 노연숙, 『시베리아 철도와 개화기 작가의 북방의식』, 『어문연구』, 제39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년 여름, 253쪽.

영과 민장 부인은 망가 형제에게 복수를 하고, 강한영 일가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 단란한 살림을 차리게 된다. 해삼위에 정착한 한인 사회에서 민장부인 이씨 또한 주목할 만한 여성인물이다. 민장부인 이씨는 매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공동체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큰 인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인물 창조는 비록 남편의 역할에 기댄 것이기는 하지만 제외 이주 공간에서 주체적인 여성 리더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독자의 뇌리 속에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설정이다. 흥씨 부인이 망가 형제로부터 도망나온 후 민장부인은 민장에게 다음과 같이 조선인 공동체 내에서 질서와 규율을 잡을 것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그 놈이 꿈쩍 못하게 하여 놓으시오, 우리도 처음에 이곳에 와서 별별 고생을 다 겪어보았으니 말이지, 저 부인 소조가 남의 일 같지 않소. 산 설고 물 선 만리 타국에 사고무친하게 오셨다가 천하에 몸쓸 놈을 만나 밤을 무릅쓰고 천방지축 발톱 부러진 걸음을 하다가 천행으로 영감을 만나 피화는 하였소마는, 만일에 뒤끝이 좋지 못하면 차라리 영감이 아니 만나니 만도 도리어 못할 터이니, 내 부탁 아니기로 어련하실 바는 아니나 힘써 일을 보아드리시오. (326)

이렇게 그 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민장부인은 민장이 망가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는 아들 정석과 함께 그 원수를 갚을 일에만 골몰하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민장부인 이씨는 남편의 복수를 하고난 후 자결한다. 이러한 결말은 지금까지 독자에게 소개된 민장부인의 인물 성격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신소설 전반에 걸쳐서 남성의 복수는 허용되는데 반해 여성의 복수는 부분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끝까지 성공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민장부인 이씨의 자결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 김복순은 신소설은 남성의 복수는 인정하더라도 여성의 복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장을 하거나 대리자를 통해 복수한 여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직접 복수의 주체로 부상한 경우에

는 처벌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민장부인 이씨처럼 복수의 동기가 인정된다 해도 ‘주체적 여성’, ‘강한 여성’은 더 이상 기존 사회로 재편입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⁵¹⁾ 작품 내에서 민장부인 역시 “천지신명이 도우시고 여러분이 힘써주신 덕분으로 철천지원을 인제는 풀었사오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지라”라고 말하면서도 “일개 계집사람으로 저놈의 유죄 무죄는 물론하고 인명을 죽였으니 살인자는 살아있는 것이 온당치 못한지라 나는 지금 죽노니 한 가지 부탁하는 바는 철모르는 자식 하나 있는 것을 잘 길러 망부의 후사를 잇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송장을 개척지로 내다가 망부의 무덤에 합장을 하여 주시면 죽은 혼이라도 풀을 맺어 은혜를 갚소리다”(383~384)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손에 들었던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엎드려진다. “소학령”이라는 재외 공간에서 진행된 가족에 대한 복수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작품의 끝까지 승리자로 남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독자와 조선 사회에서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젠더 규범은 주체적이지만 강하지는 않은 여성이어야 했다.

그렇다면 강한영 일가가 소학령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작품을 재외 이주 서사로 볼 수 있는가? 노연숙은 『소학령』 작품은 북방에서의 정착생활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 일가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던 북방에서 생사가 엇갈리는 고통스런 경험은 결국 북방정착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며 북방 생활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는 것이다. 추풍에서 모은 밀천은 자신의 일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은인들의 장례비용으로 다 쓴 후 이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선다. 이로써 추풍에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떠남이 아니라 반대로 추풍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서사로 귀결된다고 했다. 결국 이 작품은 재외 이주 서사가 아니라 귀환의 서사라는 관점이다.⁵²⁾ 그러나 서사 전개

51)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7쪽.

52) 노연숙, 앞의 글, 253쪽.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여성의 재외 이주 서사로 볼 수 있다. 작품 전체를 통하여 서사의 초점이 조선 내의 유교 사상에 근거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재외 이주 공간의 특수한 환경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사이의 어떠한 역학 관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신소설의 재외 이주 서사는 단 세 작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국가의 경계 영역 바깥으로 나가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지속되었고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피폐해짐에 따라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재외 이주 서사는 그 특성상 시의성과 맞물려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소학령」이 신문 연재소설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의 사회적 기능과 독자들의 흥미를 두 축으로 하여 쓰였다는 점을 반영한다. 「소학령」은 먼저 북방으로 떠난 남편의 편지를 받고난 후 가족을 이끌고 소학령으로 떠나는 흥씨 부인의 재외 이주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법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소학령 내에서 조선 전역에서 이주해 온 동포들의 삶은 무법천지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 규범과 성적 순결성은 조선 사회 내에서도 같이 여전히 지켜져야 할 덕목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육체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남성적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재외 이주 공간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역학 관계 역시 여성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조선 사회에서의 젠더 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학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외 이주 공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비록 전복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조선 사회의 젠더 규범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을 예시하고 있다. 흥씨 부인 스스로 자신의 육

체를 이용하여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시동생이나 민장부인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세력들을 확보함으로써 재외 이주 공간 내에서도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현실적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 이주 공간은 무법 천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학령』은 재외 이주 공간에서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역동적, 역학적 관계들을 “빙공착영”의 개념 아래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집 밖의 여성”을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해조, 『소학령』, 『한국신소설전집 3』, 을유문화사, 1968.

2. 단행본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43~55쪽.

권태환 외,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 출판부, 2005, 17쪽.

김 게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50~171쪽.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58쪽.

이채문, 『동토의 디아스포라』, 경북대 출판부, 2007, 125~134쪽.

이희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76~93쪽.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94쪽.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171~178쪽.

한원영, 『한국 근대 신문 연재소설 연구』, 이회, 1996, 68쪽.

함태영, 『1910년대 소설의 역사적 의미』, 소명출판, 2015, 97~192쪽.

3. 논문

-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7~37.
-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 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46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01~134.
- 노연숙, 『시베리아 철도와 개화기 작가의 북방의식』, 『어문연구』, 제39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년 여름, 245~268.
- 배정상, 『이해조의 『소학령(巢鶴嶺)』 연구 - 재외(在外)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5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08, 83~111.
-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 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회, 2007, 43~81쪽.
- 정중현,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53~94쪽.
- 조형래, 『신소설의 여성과 공간 -신소설의 근대성과 리얼리즘 재고를 위한 시론』, 『한국어문연구』, 제4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179~205쪽.
- 최수일, 『『巢鶴嶺』 研究 - 통속성의 서사내적 원리』, 『반교어문연구』, 10권, 반교어문학회, 1999, 239~268쪽.

Abstract

A Study on Gender in the Immigrant Narrative of the Sinsoseol (New Novel)

- Focusing on *Sohakryoung*

Lee, So-Hee

This paper aims to analyze gender in the immigrant narrative of Sinsoseol(新小說), *Sohakryoung* (1912) published in the daily newspaper *Maeil-Sinbo*(每日申報) written by Lee Hae-Jo, the prominent Korean Sinsoseol novelist in the early 20th-century Korea. Influenced by the colonial newspaper's policy of expanding its readership, Lee planned to write *Sohakryoung*, in which Mrs. Hong and her family were on the way to Sohakryoung in Russia to look for her husband in the immigrant Korean society. The main story was composed with Mrs. Hong's narrative, showing the diverse explorations and unexpected experiences on the way. Among these, the backbone of the story is the continuous threat and the possibility of sexual violence on female sexuality within the illegal social order of the immigrant community. Even though it does not suggest the subversion of gender ideolog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tory proposes the probability of breaking it in the immigrant community by protecting her body from sexual violence by herself as well as with support from others.

Key words : Sinsoseol(新小說), Immigrant narrative, Woman's body, Female sexuality,
Sohakryoung(巢鶴嶺)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